<보기>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 [3점]

｢김진옥전｣의 영웅 서사가 보여 주는 바다 세계에서의 모험담에서는 초월적 세계에 대한 변모된 서술 양상이 드러난다. 이 작품 속 초월적 세계는 다른 영웅소설에서처럼 인간 세계와의 간극을 지닌 곳으로 인식되지만, 인간 세계에나 있을 법한 갈등이 일어나는 곳으로도 그려진다. 주인공은 초월적 존재의 요청으로 초월적 세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는데, 이 과정에서 초월적 세계의 존재에게 우월한 능력을 인정받고, 약속된 보상을 받아 영웅의 자격을 증명한다

① 진옥이 ‘청의’를 입은 ‘동자’와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‘용궁과 인세가 길이 다르’다고 하는 것을 보면, 진옥이 초월적 세계와의 간극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.

② 용왕이 ‘공을 이루라’고 한 장면에서 ‘적병’의 처치를 진옥에게 요청한 것을 보면, 진옥으로 하여금 인간 세계와 초월적 세계 사이에서 생긴 문제를 대신 해결하게 하려 함을 알 수 있군.

③ 진옥이 ‘지경’을 침입한 적과 ‘대진’하는 장면에서 ‘남해 용궁’ 에서도 ‘중국’처럼 전란이 생기는 것을 보면, 초월적 세계에도 인간 세계에나 있을 법한 갈등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군.

④ 진옥이 ‘진법’을 펼치는 장면에서 용궁의 ‘제장’이 ‘명장’이 라고 ‘칭찬’하는 것을 보면, 진옥이 초월적 세계의 존재에게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.

⑤ 용왕이 진옥을 ‘치사’하는 장면에서 진옥을 ‘동해군’으로 ‘봉하’며 ‘표창’하는 것을 보면, 진옥이 약속된 보상을 받아 영웅으로서의 자격을 증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.